



### 애경산업 '2080 프로나인 치약' 3종 출시

애경산업이 '2080 프로나인 치약'을 선보였다. 히알루론산 성분, 알로에 추출물, 자일리톨 등 9가지 자연 유래 성분을 함유했다. 프로폴리스 추출액을 함유한 상쾌하고 시원한 향의 '오리지널 민트향', 유칼립투스 추출물을 함유한 산뜻하고 개운한 향의 '후레쉬 민트향', 비피더스 추출물을 함유한 강렬한 향의 '스트롱 민트향' 등 3종으로 구성했다.

## 바디프랜드, 안마의자 넘어 홈 헬스케어 기업으로 진화

# 좌·우 다리 안마부 개별 작동... '팬텀 로봇' 출시

아이언맨 로봇슈트같은 외관, 눈길 코어근육·하체근육 스트레칭 기능, 정전보호버튼 등으로 안전성 강화, 개별 구동 통해 재활치료영역 확대, 향후 심전도·혈압 측정 상품 개발



바디프랜드가 로봇형 안마의자 '팬텀 로봇'을 선보이고, 기존 안마의자를 넘어 홈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전환을 선언했다. 6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는 지성규 바디프랜드 총괄부회장(왼쪽)과 팬텀 로봇 체험존에서 제품 체험을 하고 있는 모델들.



사진제공 | 바디프랜드

국내 안마의자 리딩 업체 바디프랜드가 로봇형 안마의자 '팬텀 로봇'을 선보이고, 홈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전환에 나섰다. 이 회사는 6일 서울 강남구 도곡타워 본사에서 팬텀 로봇 출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두 다리 안마부가 개별적으로 움직이는 안마의자 팬텀 로봇을 출시하며 헬스케어 로봇의 시작을 알린다"고 밝혔다.

### ● '로봇 워킹 테크놀로지' 적용

팬텀 로봇은 두 다리가 따로 움직이면서 기존 안마의자와 차별화된 동작으로 여러 근육을 자극하는 '새로운 움직임', 코어 근육까지 스트레칭하는 '새로운 마사지감', 다양한 포즈로 몸을 움직이게 하는 '새로운 재미'를 구현했다.

단순히 안마의자에 '앉는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해 좌·우 양발에 하나씩 '차용'한다는 디자인 콘셉트를 담았다. 마치 마블 캐릭터 아이언맨의 로봇 슈트처럼 웨어러블 로봇 형태의 외관을 갖췄다. 화이트 색상과 몸을 감싸는 듯한 형태는 미래적인 세련미를 표현했고, 내부 시트는 인체 형상을 모티브로 디자인했다.

두 다리를 자유롭게 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마사지 패턴 설계가 가능해졌다. '로봇 워킹 테크놀로지'로 불리는 기술을 통해 장요근, 이완근, 햄스트링 등 기존에 자극하기 어려웠던 코어 근육 및 하체 근육 부위도 스트레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몸 전체가 뒤로 눕혀지며 오른쪽 다리는 들고 왼쪽 다리는 내려줘 장요근과 그 주변부를 이완시켜주는 '장요근 이완 모드', 허벅지 뒤쪽 근육을 늘려 유연성을 증진시켜주는 '햄스트링 이완 모드', 사이클 타는 동작으로 무릎과 고관절 주위 근육을 이완시키는 '사이클 모드', 허리 부위를 트루스트 해주는 동작을 구현하는 '롤링 스트레칭 모드' 등 로봇 모드를 새롭게 선보이며 실제 사람이 마사지를 받는 듯한 느낌을 구현했다.

움직임이 늘어나고 다이나믹해진 만큼 안전성도 강화했다. 다리 하단부 및 후면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안전센서 15개를 적용했다. 작동 중 전원공급이 끊길 경우 버튼 하나로 위치가 원상복귀 되는 정전 보호 버튼과 저온 화상 방지 기능도 적용했다. 와이파이로 쉽고 간편하게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하다.

### ● '건강 수명 10년 연장' 홈 헬스케어 추구

팬텀 로봇의 출시를 바디프랜드가 기존 안마의자를 넘어 홈 헬스케어 기업으로의 전환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건강 수명 10년 연장'의 포부를 갖고, 개별 구동이 가능한 미래형 헬스케어 제품의 특성을 살려 재활 치료 영역으로의 확장을 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독립 구동 다리 마사지부 구조 및 로봇 마사지 모드 관련한 특허로 19건 출원해 4건 등록을 진행했다.

팬텀 로봇 역시 메디컬R&D센터 소속

정형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등 관련 연구진이 실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되는 지식을 접목해 제작했다. 향후 제품 이용 시 혈압, 심전도, 심박수 등 생체신호 측정이 가능한 제품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여기에 다리 부분 분리를 넘어 팔과 목 등의 분리가 동 형태로도 개발하고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하나은행장과 하나금융 부회장을 역임하고, 3월부터 바디프랜드 총괄부회장을 맡고 있는 지성규 총괄부회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 지 총괄부회장은 "팬텀 로봇을 시작으로, 안마의자의 범주를 뛰어넘어 집에서 편하게 마사지를 받으며 각종 생체 정보를 측정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개인 맞춤형 건강 서비스로 연결시키는 이른바 '디지털 헬스케어', 더 나아가 '홈 헬스케어 플랫폼'으로서 성장할 것"이라며 "헬스케어는 사람의 건강을 다루는 중요한 업종이다. 제가 오래 몸담았던 금융업 이상으로 섬세하고 정교해야 한다. 오직 고객 건강 증진을 목표로 더욱 섬세하게 연구하고 제품 개발에 매진하겠다"고 했다. 또 "가까운 시일 내에 팬텀 로봇이 안마의자 시장의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잡고, 향후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를 열 상징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정욱 기자 jiy@donga.com



바디프랜드의 로봇형 안마의자 '팬텀 로봇'

## 한국타이어, 타이어 개발 시뮬레이션 고도화 클라우드 HPC 플랫폼 기업 리스케일과 협업



한국타이어엔테크놀로지(대표이사 이수일, 이하 한국타이어)가 클라우드 HPC(고성능 컴퓨팅) 플랫폼 기업 리스케일(APAC 총괄 황중현 대

표)와 협업해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나선다.

클라우드 HPC 플랫폼은 모빌리티 산업에서 중요한 R&D 단계인 시뮬레이션 연구 등에 활용되는 대규모 컴퓨팅 자원이다. 타이어는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와 특성 등으로 인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뮬레이션 연구가 필수적이다. 일반적으로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시뮬레이션을 구현하지만, 이는 한계가 있어 글로벌 탑티어 타이어 기업의 경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뮬레이션을 적용한다.

이번 리스케일과의 협업을 통해 한국타이어는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가 최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HPC 플랫폼 내에 현실 속 사물의 쌍둥이인 '디지털 트윈'을 가속화해 최적화된 운영 효율성을 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 CJ제일제당, 거점 업무공간 '블로썸 오피스' 오픈

CJ제일제당이 6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거점 업무공간인 '블로썸 오피스'(사진)를 오픈했다. 임직원이 집에서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며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사무공간으로, 지하철 서현역 인근에 위치해 있다. 약 377㎡ 규모에 최대 40명이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일반 사무실처럼 좌석이 배치된 공간인 오피스 존, 개인 집중 업무와 화상회의 등이 가능한 코프스 존, 음료와 간식을 즐길 수 있는 카페형 공간인 코프스 존 등으로 구성했다. 회사 측은 "업무 몰입도와 자율성을 높여 편안하고 활력 있는 조직문화 조성 등 임직원이 편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며 "향후 거점 오피스의 확대를 비롯해 임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 파리바게뜨, 여름 시즌 맞이 신상품 잇달아 출시



SPC 파리바게뜨가 여름 시즌을 맞아 신상품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먼저 시원하고 달콤하게 즐기는 '프리미엄 아이스바 바나나'를 선보였다. 우유 함량을 약 44%까지 높여 부드러운 풍미와 함께, 고소하고 쫄쫄한 식감을 느낄 수 있다. 또 고급 중화요리에 사용하는 XO소스를 빵과 접목한 'XO 고로케'(사진)를 출시했다. 바삭하고 쫄깃한 빵 속에 XO소스, 돼지고기, 부추 등으로 속을 채웠다. XO소스는 건새우와 건가리비 등 해산물로 만든 대표 중화소스로, 짭조름하면서도 감칠맛나는 풍미가 매력적이다.

## 서울관광협회, 서울시와 뉴딜일자리로 업계 지원

서울특별시관광협회(회장 양무승)는 최근 서울형 뉴딜 일자리 사업에 선정된 업체에게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다. 뉴딜일자리는 코로나19 최대 피해 업종인 관광업계의 인력난 해소를 꾀하고 예비 관광업 종사자의 근무경험과 직무 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총 52개의 관광업체가 선정되었으며 파견인력은 101명으로 1, 2, 3차에 걸쳐 모집 예정이다. 선정 업체는 관광분야 인력양성 능력이 있는 여행업, 호텔업, MICE업 등이다.

편민 | 신하늬 기자 myhukki@donga.com

## "자산 4조 규모 식품기업" 롯데제과-롯데푸드 통합법인 공식 출범

연 매출 3조7000억...업계 2위로 중복된 요소 통합해 효율 극대화 R&D 등 시너지 강화로 매출 확대



롯데제과-롯데푸드 통합법인 공식 출범식의 기념 촬영 모습. 이진성 롯데제과 사립대표, 안세진 롯데 호텔 군HQ장, 다미츠카 겐이치 롯데홀딩스 대표, 이동우 롯데푸드 부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이영구 롯데제과 대표, 김상현 롯데 유통군HQ장, 김교현 롯데 화학군HQ장, 송용덕 롯데푸드 부회장, 이인복 롯데 컴플라이언스위원장(왼쪽부터).

사진제공 | 롯데제과

롯데제과와 롯데푸드의 통합법인인 '롯데제과 주식회사'가 5일 롯데호텔 월드에서 출범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출범식에는 신동빈 롯데 회장을 비롯해 주요 계열사 대표 및 임직원 300여 명이 참석해 '더 나은 먹거리, 더 행복한 삶'이라는 미래 비전을 선포했다. 통합 롯데제과는 국내 17개 공장과 해외 8개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 자산은 3조9000억 원, 연 매출 3조7000억 원으로, 기업 규모로는 식품업계 1위 CJ제일제당에 이어 2위다.

통합법인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과 이

영구 롯데 식품군HQ장이 공동으로 맡는다. 기존 이진성 롯데푸드 대표는 영업본부, 생산본부, 마케팅본부, e커머스(전자

상거래) 부문을 아우르는 사업대표로 근무한다.

통합 롯데제과는 영업, 생산, 구매, 물류

등 모든 부문에서 중복된 요소를 통합하고 이를 통해 효율 극대화를 추진한다. 또 거래선 공유를 통해 해외판교가 확대돼 글로벌 확장이 더욱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커머스 조직을 통합하면 물류 효율을 개선하고 구색 다양화와 공동 프로모션 등을 통해 매출 확대도 꾀할 수 있다.

이영구 대표는 "이번 합병으로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 미래 투자재원의 확대, 연구개발(R&D) 및 마케팅 시너지 강화로 보다 높은 기업 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됐다"며 "새 기술 연구와 혁신을 통해 푸드테크 선도 기업을 지향하고, 데이터 기반 경영 시스템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했다. 또 "해외 사업 역량을 강화해 글로벌 식품기업은 물론, ESG 경영을 실천해 모든 사회구성원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정욱 기자